

북한의 2006년 상반기 주요 산업과학기술동향

글 _ 최현규 팀장 · 동향정보분석팀 · hkchoi@kisti.re.kr
김성호 · 동향정보분석팀 · nktech2000@kisti.re.kr

1/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

농업에 대한 강조는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처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부문인 데서 비롯되었다. 올해 북한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향상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에 몇 차례에 걸친 자연재해와 경제 침체로 인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농업 생산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일련의 지원과 노력 동원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1월25일 4.25문화회관에서 당-정 및 농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업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을 비롯해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등과 관련 부문의 과학기술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본 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전국농업대회' 주요내용》

-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함.
- 알곡생산에 농촌 노동력을 최대한 집중시킴.
- 관련 기계설비와 물자를 영농사업에 집중시킴.
-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을 생산함.
-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의 원칙에 맞게 작물을 배치, 관리함.
- 비배(肥培)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추진함.
- 기존의 농업구조를 개조해(예: 다수확 벼품종 도입, 감자, 콩의 재배면적 확장 등) 주민들 식생활 향상을 이뤄야 함.

이 대회의 특징은 농업증산을 위해 노동력-영농물자의 우선적 동원과 영농사업의 과학화 및 농업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다. 참고로 전국농업대회는 농업부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과업 및 현안문제 대책 등을 제시하는 행사로 지난 1971년 1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농민들로 하여금 철저한 영농사업 준비를 독려하고 증산의욕을 높이는 한편, 각 기관-기업소를 대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설비, 물자의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행사로 보인다.





2 / 규격/계량화 부문의 대외협력 강화

북한은 대외적으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품질 관리 관련 협조협정을 체결하는 등 표준화, 규격화를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북-베트남 간 규격화-계량-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식'은 북한 국가품질감독국이 지난 2003년 11월 20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규격 및 품질총국과 체결한 규격화 및 계량품질분야 협조협정에 의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실리'의 원칙하에 과학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품질관리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대내적으로는 '통일적인 경제지도관리', '생산의 실리 보장',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각 경제부문에 국제 규격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독일, 중국과 양자 간 품질·규격화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품질부문의 대외 협력에 주력하여 왔다.

일 자	내 용
2002. 8.	○ 중국과 '규격화 및 계량품질분야 협조협정' 체결
2003. 9.	○ 중국과 '품질인증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및 '2003-2004 규격화, 계량, 품질감독분야 협조계획서' 체결
2003.11.	○ 라오스와 '규격화, 계량, 품질감독분야 협조계획서' 체결
2004. 4.	○ 베트남과 '규격화, 계량, 품질관리협조 협정' 체결
2005. 5.	○ 러시아와 '2005-2006년 규격, 계량, 품질관리부문 협조 계획서' 체결
2006. 1.	○ 베트남과 <규격화-계량-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

〈북한의 표준 관련 최근 주요 대외협력 동향〉

이번 북-베트남 규격화-계량-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체결은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품질제고 등 품질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 소비전력 관리사업 추진

최근 북한 송전선건설사업소는 심각한 전력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전력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합리한 송전체계의 개선 : 송, 배전망을 '나뭇가지식'에서 '방사형식'으로 정비
- ② 전기석탄공업성내 소비전력관리를 전담하는 전력지휘국 신설
- ③ 카드식 적산전력계 도입 : 전력 도중손실과 낭비를 막아 전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 등

이번 송전선건설사업소 기사장의 발언 내용에서는 누전 등으로 인한 전력 도중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전력공급체계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전기절약을 위해 생산현장, 가정용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앞으로 북한은 송-배전선 교체와 공장-기업소 및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 개건, 현대화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2006. 1. 23) '최근 각 공장, 기업소들이 설비를 갱신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경제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는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이것은 공장-기업소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끊임없는 설비갱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②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갱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며 현 시대의 요구로 책임 일꾼들은 설비갱신사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니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③ 개건현대화는 올해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설비갱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는 것이 현 시기 책임일꾼들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이다.

최근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공장-기업소 개건현대화 사업은 경공업성 및 국가과학원 경공업과 학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인민소비품의 품질향상과 생산공정 현대화에 집중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바 이는 개혁-개방추진에 따라 제품의 질 향상과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설비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AI 방역에 주력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경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AI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무렵부터 북한당국은 세계 각지의 AI 관련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동안 북한이 AI를 방역하기 위해 수립한 일련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 ▶ 농업성보건성 및 내각사무국체신성인민보안성 등 중앙기관부터 도시군 지방기관에까지 수의비상방역 통보체계 가동
- ▶ 발병우려 가금공장에 대한 검역 및 공장소독 실시
- ▶ 철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류배설물 검사 진행
- ▶ 외국에서 항만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가금류 검역 강화
- ▶ 가공제품들과 입출경자들에 대한 검역활동 등

이번에 북한은 봄철 '수의방역월간'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들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3.28, 조선신보). 북한은 지난해 말,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자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AI의 감염증세, 전파경로, 위험성 등을 보도하면서 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여 왔다.

북한이 이와 같이 AI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및 단위들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지속 촉구하고 있는 것은 AI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유입될 경우 낙후된 보건의료체계 등을 감안,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에 대한 경계는 더욱 더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현대적 과학기술 강조

김정일 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의 발전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확대되었다. 예컨대 1990년 후반부터는 대내외적으로 김정일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당시 실제 추진했던 주 정책의 흐름은 선진 첨단기술 도입, 신기술 개발, 대외협력 강화, 과학기술 전문인재 양성 등이다. 이후 북한은 제1차(’98~’02) 및 제2차(’03~’07)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잇달아 추진했다. 참고로 최근 북한이 내놓은 과학기술적 성과 혹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 식물성 살충제-농약 개발, 다수확 콩-감자품종개발, 인세균비료 및 식물영양강화제 개발, 농업생태환경 평가 연구, 최신 알곡정선기 개발 등
- ▶ 에너지-경공업 부문의 개진 현대화, 주요 공장-기업소에 과학자-기술자를 파견, 연구사업의 현장 도입-적용을 강조
- ▶ 새로운 채탄방법 도입, 태양전지 연구사업, 초음파 유량계 제작, 비누용 향료 제조, 방직용 설비 공정 개선 등

이번에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제하의 보도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재차 강조하였다. 주요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임. 과학기술 발전을 강성대국 건설의 방도로 삼고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경제 기술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 모든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하고,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 모든 일꾼들은 생산의 전문화를 고도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실현하고 경제구조를 끊임 없이 갱신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이번 보도는 김정일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김일성의 자력갱생과 연계,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 정상화를 강조하여 이를 통해 금년도 제시된 경제 전략인 주요 공장-기업소의 인민경제 개진-현대화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지적소유권 보호 강조

북한은 지난 1990년 말 무렵부터 과학기술 및 정보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적 재산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지적재부의 창조와 보호” 제하의 보도를 통해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북한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적재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 세계적으로 지적 소유권과 관련한 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의 시대로서 지적재부를 창조하고 소유한 사람-기관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문제”가 절박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적재산권 관련 동향을 보면, 1974년 8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의 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90년대 후반에 들어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내세운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왔다.

북한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80.6), 특허협력조약(PCT)('80.6), 意匠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97.6), 문학-과학-예술작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03.1) 등에 가입하였다. 발명법('98.5), 상표법('98.1), 공업도안법('98.6), 저작권법('01.4) 등을 제정하였고, 지적재산 유통 제도화('04.1)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중재위원회 설립('04.5)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북한이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과학기술 개발기관과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의욕 고취 등 동기부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실리중심 경제관리 강조

북한은 '실리보장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 라는 제하의 노동신문사설(4.2일)을 통해 실리 보장을 기본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발전시키고 경제건설을 최대한 다그치는 물질적 담보는 경제관리에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산업시대에 경제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술, 기본 핵심이 경제 관리의 종자이다.

셋째, 경제지도 일꾼은 경영-기업전략을 옹계 세우고 주도성-창조성-능동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당의 실리주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관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산, 경제작전, 지휘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집행-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자면 경제부문의 모든 일꾼이 품질감독체계를 바로 세워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여섯째, 사회주의 원칙은 경제사업에서 변함없이 지켜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며,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번 노동신문 사설의 특징은

첫째, 경제실리의 기준을 단순한 노동과 생산물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 질적 개념을 중시하고 있고 둘째, 정보화시대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의한 "새롭고 창조적인 묘술"을 경제건설 비약을 위한 경제관리의 종자(핵심)로 규정했으며 셋째, 자본주의사회의 개인주의를 비판, 국가적 관점에서의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노동신문 사설은 경제간부들로 하여금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3實(실리-실력-실적)에 기반을 둔 의식변화 및 경제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실리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적 경제관리에 기본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7.1조치 이후의 경제질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개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는 10여 개국 200여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전람회가 처음 개최될 때만 하더라도 외국업체가 불참하여 대내행사에 그치고 말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참가국의 수가 점차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 개최가 정례화되었다. 개막식에 참가한 북한의 무역성 부상(조정호)과 조선국제전람회 사장(김동명)은 참가국들간의 경제, 기술 교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본 행사에서 북한은 강철, 전기 및 전자제품, 공작기계, 석유화학제품, 가금설비, 의약품, 농약 및 화학비료, 식료품, 각종 일용품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정성제약연구소에서 내놓은 의약품, 주사약, 고려약품(한약), 건강식품과 북한의 기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천지윤희유', 북한의 전압 조절범위(10~1천kW)를 고려한 다기능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용 전압주파수 안정기' 그리고 미량원소 비료인 '유산마그네슘비료'와 5개 외국어 대사전이 입력된 소형 단말기 등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기술 품목들이다.

이를 포함해 3천여 평의 전시회장에는 CNC선반(수치제어자동선반) 생산업체로 북한이 자랑하는 련하기계 등 북한 기업 21곳과 중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시리아, 이탈리아, 태국 등 12개국 196개 기업의 전시 부스가 마련되었다.

경제부문에서의 대외협력 강화는 북한 내의 부족한 수급을 보충하기 위한 과거의 소극적인 대외 무역에서 분명 진일보하였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내놓은 신기술, 신제품들도 대체로 국제적인 기술 추이와 경향을 따른 제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경제 전반적으로 '자력갱생' 원칙보다는 대외협력의 확대를 염두로 한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양적 질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진행하는 산업, 경제부문의 전람회와 대외협력의 의지는 여전히 어려운 북한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10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

올해로 21차를 맞이하는 중앙과학기술축전이 5월 2일-5일,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지방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0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농산,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19개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첨단 및 기초과학기술 분야들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높은 수준에 올리고 인민경제의 개진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들을 교류하였다.

금년도 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품목이 보다 세분화되고 출품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7개 분야에서 총 430건이 출품, 전시되었으나 올해는 19개 분과로 총 500건을 상회하였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앙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하여 전국 정보화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등의 IT관련 전시회와 경연대회와 과학기술자 성과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기술전시회는 2000년 이후에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농산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전력부문 기술협의회, 석탄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등이 개최 예정이다.

11/ 삼수발전소 공사 완료

북한은 1999년부터 10여개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수발전소는 2004년 5월 7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규모와 준비, 그리고 건설능력 등을 언급했던 사업이다.

최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2006.6.17)에 따르면 “삼수발전소의 발전설비 조립, 취수로, 비상방수로, 착굴 등 전반적인 대상공사가 지난달 15일에 끝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이번 공사를 계기로 향후 백두산지구의 전기화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기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백두산 관광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대규모 수력발전소 완공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경축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의 남은 부분을 ‘6.18 건설돌격대’에 위임하였는데 여기에는 각 도(道)의 건설인력과 군인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어 있다.

12/ 감자농사에 주력

북한이 국가적으로 감자농사를 중요시하게 여긴 시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대흥단군 현지도를 수행했던 지난 199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정일은 ‘감자농사의 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하며 두벌농사 방침과 감자농사혁명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김정일이 발작물의 주력 생산물로 감자를 선택한 것은 감자가 고원지대에 잘 자라며 기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료가 부족한 북한에서 감자는 옥수수에 비해 비료가 적게 들고 가공방법이 다양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국토면적의 80%가 산지인 북한에서 재배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작물로서 김정일은 감자를 택한 것이다.



감자의 주 생산지인 양강도 대흥단 일대에는 주변 북부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감자재배 면적이 확대(1997년의 45,000정보→ 2005의 200,000정보)되었고 우량감자종자 개발, 보급 등 감자 증산을 위한 노력 또한 전개되고 있다. 근래에는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등 서해안 평야 지대에서도 병충해에 강하고 식용가치가 높으며 이모작 재배가 가능한 다수확품종을 개발하여 시험 재배하고 있다. 조선신보의 보도(2006. 3.14)에 따르면 “서해안 평야지대에서는 재배 가능한 다수확품종(올감자6호, 올감자7호)과 이모작 재배 품종(형산감자 1호, 형산감자 2호)을 새로 육종하였다”고 한다.

이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황해북도 토산군 등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감자밭 비배관리를 소개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당의 두벌농사 방침에 따라 김매기와 물도랑치기, 병해충 피해 막이 대책 등 앞그루 감자밭 비배관리(작물관리)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양강도 삼지연군 협동농장의 선례를 제시하며 “특히 읍, 수합, 미당, 석봉협동농장들에서는 일벌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고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감자밭 가꾸기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감자 증산을 위해 각 군의 1개 협동농장에 1개의 감자생산 전담 분조를 신설했다. 농업성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에도 각각 ‘감자 생산국’과 ‘감자 생산체’를 조직하였다.

13 제12차 남북 경추위 개최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열차시험운행 연기로 인해 남북관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남북경협협의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상호간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전체회의와 위원장 접촉 및 위원접촉을 통해 남북은 아래와 같이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No	주요 내용	비고
1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채택	·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
2	·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추진	· 추가 군사적 보장조치에 따라 협의
3	·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 개최(6.20~21) -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등	
4	·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개최(6.26~27)	
5	· 자연재해를 공동 방지 대책 협의	· 7월중 실무접촉 개최 예정(개성)
6	· 경제,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문제 협의	· 7월중 실무접촉 개최 예정(개성)
7	· 남북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시점부터 시행
8	· 수산협력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협의, 확정 · 상사중재위원회, 개성, 금강산 출입 및 제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 협의, 확정	
9	· 경추위 제13차 회의 개최 예정	· 9월중 평양





이번 회의에서 주로 언급된 사항들은 기존에 상호 협의한 남북경제협력의 전반적 틀을 재확인한 것으로 각 사항들의 시행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북한의 일방통보로 연기된 열차시험운행 실시의 경우 군사적 보장조치와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될 때에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합의를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 우리측 위원장은 합의문 제1항의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가 “군사보장 조치와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의미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가 상환 원칙을 명문화하여 남북간 경제협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호혜적인 남북경제협 대상의 확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접촉 개최한 점, 그리고 경제분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들 수 있다.

넷째,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즉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남북이 공동 인식을 가지고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및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등의 조치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